“마스크, 체내 산소 공급 영향 없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연구소 실험
노인 25명 산소포화도 변화 없어
심장·폐질환 환자는 대상서 제외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도 체내 산소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인구 보건연구소의 노엘 찬 박사 연구팀은 마스크가 혈중 산소포화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3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노인 25명(평균연령 76.5세)에게 휴대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portable pulse oximeters)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면서 마스크(3겹 비의료용)를 쓰기 전 1시간 동안과 마스크를 쓴 후 1시간 동안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고 난 후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평균 96.5%와 96.3%로 쓰기 전의 96.1%보다 약간 높았다. 쉬고 있을 때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 또는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산소 포화도 감소에 매우 취약한 노인들에 초점을 두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실험 참가 노인들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를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전염병학회 대변인 아론 글래트 박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 가지 문제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도 되느냐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중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에 대해 글래트 박사는 걷기운동이나 달리기를 할 때는 가까이에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쓰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빈 ‘총격 테러’ 현장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의 총격 테러 현장에서 중무장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지난 2일 밤 빈 도심 6곳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미국, 대만에 7천억원 규모 첨단 드론 ‘MQ-9 시가디언’ 수출 승인

해상감시 특화 무인기 개량 기종
첨단무기 잇단 판매에 중국 반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또다시 승인했다.

3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6억 달러(약 6800억원) 규모의 공격용 무인기(드론) MQ-9 ‘시가디언’ 4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드론 판매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했다.

국무부의 승인을 의회가 반대할 수도 있지만,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무부가 대만 수출을 승인한 MQ-9 시가디언 드론은 MQ-9 리퍼 무인기의 최신형 개량 기종으로 해상 감시에 특화된 모델이다.

시가디언의 원형 모델인 MQ-9 리퍼는 무장을 갖출 수 있는 무인전투기(UCAV)로 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 사가 제작한다.

리퍼 드론은 무게 4.7t, 최대 상승고도 15㎞로,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230㎏ 무게의 GBU-12 페이브 웨이 II 레이저 유도폭탄 두 발과 GBU-38 합동직격탄 등도 장착할 수 있으며, 영국·프랑스 등 미국의 해심 동맹국이 중동의 테러 집단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실전 배치했다.

미 국무부의 대만 수출 승인이 난 드론들은 통상적으로 MQ-9 리퍼 드론이 장착하는 폭탄이나 미사일은 제외하고 지상 조종기지, 정찰·통신장비만 함께 수출하는 것이라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이 잇따라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 18억 달러(약 2조 4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위챗 계정을 통해 “미국과 대만 일부 인사가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려 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2035년까지 GDP 2배 커진다”

내년 상반기 ‘사오캉사회’ 선언
미국과 본격 패권 경쟁 예고

미국 대선 국면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2035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규모에 비해 2배로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 추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부강한 중국을 의미하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선언하겠다며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지만 현재 국내외 환경이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 국면에 있다”면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는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만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국가 종합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구 14억 명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해 세계 최대이자 잠재력이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면서 기술 확보와 내수 확대를 통해 자립 경제를 내세운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총량 또는 1인당 GDP가 두 배로 커지는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능력과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는 잠재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당 중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내부 평가를 거친 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선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야심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2035년까지 중국 GDP를 두 배로 만들겠다는 것은 미국을 추월한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내년 상반기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시점에 샤오캉 사회 건설 선언 또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국·프랑스 코로나19 사망자 반년만에 최다

하루 각각 397명·854명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하루 사망자가 올 봄 이후 반년 만에 최다를 보였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현지시간) 신규 일일 코로나19 사망자가 3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다를 보인 것이다. 누적 사망자는 4만 7250명이 됐다. 영국은 유럽에서 누적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누적 확진자는 107만3882명으로, 3일 하루 확진자는 2만18명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코로나 사망자는 양성판정을 받은 지 28일 만에 숨지는 인원으로 집계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일부터 전국 봉쇄를 시작해 다음 달 2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 봉쇄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자 결국 강력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프랑스에서도 3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54명 나와 4월 중순 이후 최다를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3만8289명이 됐다. 누적 확진자는 150만2763명이며, 3일 하루 확진자는 3만 6330명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지난 3~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OPEC+ 코로나19 재확산에 증산 연기 추진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예정된 원유 감산 폭을 이행하는 대신 현 수준의 감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국인 알제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PEC+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원유 감산량을 현재의 하루 770만배럴에서 580만배럴로 줄여야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가 하락세가 나타남에 따라 예정된 증산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압델마지드 아타르 알제리 에너지장관은 국제 원유시장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알제리는 감산량 유지에 찬성하며 이라크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OPEC 사무총장도 감산 정책에 대한 경로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릴 회의에서 유가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C+는 지난 4월 긴급회의를 열어 감산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물건

공 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41-1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287,858,000원(45%) 유찰 3회

공 장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38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 : 2408㎡(728.4평)
감정가 : 1,208,461,600원
최저가 : 1,208,461,600원(100%) 신건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